

### 조계종 직할교구 포교·승려복지 확대

12일 중화... 예산 16억 확정

조계종 직할교구 올해 예산이 일반회계 6억3천여만 원과 특별회계 10억2천여만 원 등 총 16억5천여만 원으로 확정됐다.

조계종 직할교구(교구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는 3월 12일 제1차 교구총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과 예산을 확정했다. 자승스님은 개회사에서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직할교구는 수행과 포교를 통한 불법홍포에 진력해야 한다"며 "특히 중단 백년대계의 중심에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이 있기에 미래세대를 희망과 용기의 길로 안내하는 등불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직할교구는 올해 '포교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사찰과의 연대강화 '직할교구 승려복지의 안정적 정착'을 핵심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서울구별조계종주지협의회 활성화, 서울시 포교 지표조사, 직할교구 공학 사무장 회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회계 예산은 지난해 대비 2억3천여만 원이 증가된 6억3천여만 원, 특별회계는 지난해 대비 2억4천여만 원 증가한 4억4천여만 원으로 확정됐다. 특별회계에서는 말사 부동산 수익금을 적립하기 위해 '직할교구 부동산수익적립금 특별회계'가 신설됐다. 신성민 기자

## 불교 내부 충실도 '빨간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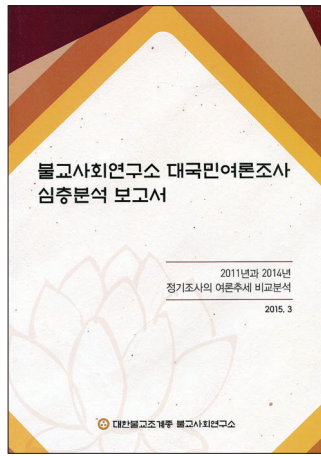
### 조계종 불교사회학, 여론조사 분석 보고서 발간

한국사회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은 커진 반면, 신뢰도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교의 '종교적 충실도'는 주요 종교 중 최하였다. 특히 불교의 내부적 충실도가 낮다는 결과는 최근 한국 Gallup이 내놓은 조사결과와 크게 차이나지 않아 대책이 시급하다. <본지 1032호 1,3면 보도>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대국민여론조사 심층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불교사회연구소가 지난 2011년과 2014년 인구센서스를 기반으로 진행한 면접조사의 추세를 비교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 사회의 사회문제와 행복 △한국 종교의 현실과 과제 △불교에 대한 인식과 과제 △한국인의 종교생활 등 4가지 주제로 구분됐다.

이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국민들은 '빈부격차 해소'를 꼽았다. 빈부격차 해소는 2011년 19.7%에서 2014년 22.3%로 증가했으며, 부정부패(12.6%), 정치불안정(12.1%), 범죄·일탈(11.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종교 가운데 사회적 영향력이 가장 큰 곳은 2011년 개신교에서 2014년 가톨릭으로 변화했다. 종교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5점 기준으로 가톨릭은 2011년 4.11점이었으나 2014년 3.39점으로 감소했고 불교는 4.05점에서 3.32점으로 떨어졌다. 개신교는 3.34점에서 2.92점으로 내려갔다. '불교에 대한 인식'에서는 불교의 바람



### 2011·14년 조사 비교 분석 종교 전반 신뢰도 감소 추세 '종교적 충실도' 불교 최하위 수행·기도·만족도 가장 낮아

불교는 2011년 2.56점에서 2014년 2.39점으로 하락했다. 불교에 대한 만족도도 역시 2011년 2.79점에서 2014년 2.63점으로 감소했다.

명상, 기도, 경전 읽기 등 종교적 충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조사에서도 불교가 최하위로 나왔다. 이는 외형상 불교가 한국 제1종교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에 대해 박수호 덕성여대 교수(연구소 기획위원)는 "불교는 종교행사 출석률, 수행활동률, 보시금 납부률 등에서 최하위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종단의 정체성 확립과 자정능력 제고, 재정투명성 확보 등 시대변화에 따른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은 커지는데 신뢰도가 감소하고 있는 결과는 마음의 평화라는 종교의 본질적 기능보다 사회적 인간관계 형성 등 부수적인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불교 신도조직 활성화와 확대를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한국, 다수의 원력 통하는 사회대야"

### 박노자 교수, 11일 한반도불교통일기획단 토론회서

"한국은 격차사회의 극치다. 평등을 통한 이상적 사회를 강조한 (아함경)을 현대적으로 풀이하면 곧 부의 재분배와 상통한다. 기업세를 비롯한 양도세, 증부세 등을 강화시켜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에 투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소수의 지배가 아닌 다수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다수의 원력은 세상을 움직이는 큰 힘이다."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상임 단장 법승)이 주최가 돼 지난해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불교계 통일역량 증대를 위한 토론회, 3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박노자 교수(오슬로 국립대학)는 현 한국사회를 이 같이 진단하며 불교의 현대적 적용을 시도했다.

박 교수는 "국민 5명중 1명이 경제적 이유로 의료진료를 포기하는 상황,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 관료집단마저 자본에 점령당한 현 상황에서 국가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단언하며 "다수가 어떤

이들 대통령으로 선택해도 경제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와해되고 있는 증거다. 자본을 위시한 극소수의 지배가 특세하는 상황에서 복지국가로 가는 진정한 가능성은 박탈돼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박 교수가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노동계급과 중산계급의 강력한 진보연대와 공동투쟁"을 내놓자, 이 자리에 참석했던 조계종 교육원장 현승 스님은 "밀로부터의 급진적 압박이 아닌 정부와 국민의 총체적 역할 분담, 국민의식 계몽 등의 다른 접근도 필요하지 않을까"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노동계급과 중산계급의 '원력'은 변혁을 이끌어내는 최초 움직임이 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국민들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생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수의 지배가 아닌 다수의 필요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다수의 원력이 세상을 움직이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현진 기자

## "KTX 대법 판결, 노동자 보호 역할 포기"

### 조계종 노동위, 11일 대법 판결 긴급토론회 개최

대법원의 KTX 여승무원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패소 판결에 대해 종교계와 법조계 인사들이 모여 사법부가 노동법적 보호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은)는 기독교 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와 함께 'KTX 여승무원 대법원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3월 11일 오후 2시 조계종 템플스테이 정보관 3층 문수실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KTX 여승무원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가 'KTX 여승무원 왜 불법과연인가'의 주제 발제를 맡았다.

김홍영 교수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KTX 여승무원들은 안전 업무와는 상

관없는 객실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이는 승무원들의 업무가 혼재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대법관들이 여승무원들의 실제 노동 모습을 보려 노력하지 않고 문서로 나타난 자료 중심으로만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김 교수는 "대법원 판결은 결국 철도공사 사가 여객의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청업체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노동위 소속 도철 스님은 "KTX 여승무원에게 큰 힘이 되어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이 문제는 단편적인 토론 자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배현진 기자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3월 11일 'KTX 여승무원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 조계종 포교교사 고시 843명 합격 영예

#### 윤탁수·김지현 공동 수석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지원)은 지난 2월 28일 실시한 '제20회 일반포교사 자격고시 응시자' 중 최종 합격자 843명을 확정 발표했다.

포교원에 따르면 총 접수자는 1026명(불교대학 및 개인 접수자 959명, 추천 응시자 43명)으로, 이중 서류전형 통과한 1002명 가운데 결사자 61명을 제외한 941명이 응시해 843명이 합격했다. 전체적으로는 이번 제20회 일반포교사 고시 접수자는 전년 대비 6%가 증가했다.

이번 고시 응시자 중 최고 득점자는 영축불교대학에서 응시하신 윤탁수 씨와 봉선사에서 추천자 전형으로 응시한 김지현 씨가 공동수석의 영예를 안았다.

포교원은 이번 필기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4월까지 제2차 오리엔테이션 및 연수를 실시하고, 7월까지 다양한 지역활동과 봉사활동 등의 평가를 통해 오는 9월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여 품수식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나 기자

## 새 법당서 불심 다져 상생정치를

### 국회 정각회, 3월 12일 법당 이전 및 개원법회 "정치는 국민 이롭게 하는 것"

국회 불자 모임인 정각회가 국회 본관 지하에 새 법당을 마련하고 불심에 의한 상생정치를 다짐했다.

국회 정각회(회장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는 3월 12일 국회 본관 지하 1층 새 법당에서 개원법회를 열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정의화 국회의장, 강창일 정각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자승 스님은 법어를 통해 "정치는 여야와 국민 모두를 이롭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상생정치를 당부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새 법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대화하고 타협해 우리사회가 화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창일 정각회장은 "정각선원이 그동안 수행도량의 면목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새



국회 정각회는 3월 12일 국회 본관 1층 새법당에서 개원법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내외빈들이 삼귀의를 하고 있는 모습

법당 불사에 힘써준 사부대중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개원한 정각회 법당은 기존 법당보다 2배 가량 면적이 넓어졌다. 정각회는 기존 법당이 오래되고 장소가 좁아 법회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데 불편을 겪음에 따라 올해초부터 법당 신축이전 불사를 추진해왔다. 법당 설계는 서울월드킴경기장 등을 설계한 이공건축 류춘수 회장이 맡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A Pictorial Biography of Sakyamuni Buddha**

한영대역 그림과 함께 읽는 석가모니 붓다의 생애

## 그림과 함께 읽는 석가모니 붓다의 생애

가장 행복한 나눔—  
"부처님의 생애"를 선물하는 일입니다

천지를 운행하는 거대한 섭리를 향해 던진 큰 물음표가 있었기에, 그리고 해답을 얻고야 말겠다는 구도예의 열정이 있었기에 부처님은 세상의 그 누구도 얻지 못한 큰 깨달음으로 세상에 빛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 안에서 진정한 힐 곳을 찾았고, 구원을 얻었으며, 삶과 자연과 자기 자신의 가치에 눈을 뒀습니다. 부처님의 생애가 주는 감동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진정으로 먹어야 할 영적인 양식이 아닐까요!

— 대현 스님 ("선승의 길"의 저자)

**119** 고요한 산에 속에서, 신타라라는 자신의 삶의 근원을 찾으려고 애쓰면서, 마음을 살피고 주시했다. 그리하여, 자신의 모든 전생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심오한 통찰을 통하여, 그는 또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과, 존재들의 미래 생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 하여 그는, 삶과 죽음의 끝없는 윤회가 카르마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윤회란 한 사람의 생각과 행위의 현현(顯現)임을 깨달은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현재 즐겁고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현재 겪는 고통보다 더 심한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

In the tranquility of samādhi, Siddhātha searched and observed mentally, trying to find the Source of his own life. Thus he acquired the power of being aware of all his previous lives (Pūrvanivāsasūtram). Through further insight, he also acquired the divine vision (Divyacakṣus), the power to see all things and to know the future rebirths of all beings. He thus came to realize that the unceasing cycle of death and rebirth of all beings is solely a manifestation of one's karma; that is, one's thoughts and deeds. Some people could be born to a better life than they presently enjoyed, encountering all sorts of happiness, because they had done good deeds. Some, on the other hand, could be born to a condition worse than their present ones and suffer very much because they had done bad deeds.

기회 및 감수 || 대현 스님  
 글, 그림 || 구나파유타 (태국)  
 영역 || 呂麗安 (Z. A. Lu)  
 한글 번역 || 이순임

몇 년 전, 중국어와 영어로 된 이 책자를 보고는, 우리나라의 불자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나라 사찰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붓다의 일대기를 꼭 읽고 싶다는 바람을 품게 되었습니다. —大玄 합장

법보시를 지원합니다  
 산청 정각사  
 경남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대로 1440-28  
 055) 972-1109  
 010-9772-4588

석가모니 부처님이 남기신 물음표와 느낌표!  
218컷의 그림과 함께 음미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

우리보리나무 울리브나무 전화 8274-1226, 010-7755-2261 팩스 031-629-6983 이메일 yoyoyi91@naver.com